

광주전자공고 배구 춘계대회 13년만에 '우승 사냥'

플세트 접전 끝 극적 승리
영생고 3-2 꺾고 결승 진출
오늘 속초고와 우승 놓고 격돌
순천 팔마중 전국대회 첫 우승 도전

광주전자공고가 2020춘계 전국 남녀 중고배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전자공고는 30일 충북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수월 영생고와 준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2(25-21 25-19 19-25 16-25 15-13)로 승리했다. 결승에 오른 전자공고는 1일 속초고와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 속초고를 꺾으면 전자공고는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춘계대회 정상에 복귀한다.

영생고와의 준결승전에서 레프트 선홍웅·김준형, 라이트 정인혁·조승현(세터), 센터 안창호·김평화가 스타팅 멤버로 나선 전자공고는 세터 조승현의 안정적인 토스를 바탕으로 좌우 공격이 활기를 띠고 수비까지 뒷받침되면서 1, 2세트를 연속 따내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전자공고는 반격에 나선 영생고에 3, 4세트를 잇따라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한 번 가리앉은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마지막 5세트도 5-7까지 끌려갔다. 하지만 좌우 오픈 공격과 중앙 속공으로 내리 3점을 따내 8-7로 역전된 뒤 2점차 리드를 유지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전자공고 결승 상대인 속초고는 지난해 전국체전 8강전에서 만난 팀으로 당시 전자공고가 세트스코어 3-2,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전자공고는 2007년 춘계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전자공고는 서재덕(한국전력 빅스톰·군복무

중) 등이 활약한 당시 CBS배와 춘계대회,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며 고교배구 최강자로 이름을 날렸다. 전자공고는 지난해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는 3위에 올랐다. 전자공고는 앞선 8강전에서는 천안고와의 경기에서 3-1(25-21 25-23 15-25 26-24) 승리를 거뒀다. 조별리그에서는 울산제일고와 경북사대부설고, 순천제일고에 모두 승리하며 3전 전승으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남중부에서는 순천 팔마중이 충북 옥천중을 세트스코어 2-0(25-14 25-1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순천 팔마중은 결승전에서 함안중을 상대로 팀 창단 첫 전국대회 패권을 노린다. 순천 팔마중은 전국소년체육대회(38·39·44·46회)를 제외하고 전국대회에서 단 한번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제100회 전국대회에서 3위에 오른 전자공고 배구팀.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이 선수들에게 메달을 목에 걸어주며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양용은

기다렸다 KPGA...내일 시즌 개막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가 미루고 미뤄왔던 시즌 개막전을 드디어 개최한다. 코리아투어는 오는 7월 2일부터 나흘 동안 경남 창원외의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파72)에서 우승종합전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이하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을 연다. 코리아투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작년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8개월 만이다. 코리아투어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사태로 7개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개막이 미뤄졌다. 코리아투어는 부산경남오픈부터 KPGA 군산 CC오픈, KPGA 오픈 등 3주 연속 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2020년 시즌을 진행한다. 8월에 KPGA 선수권대회, GS칼텍스 매경오픈이 이어지고 9월 신한동해오픈과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차례로 열린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부산경남오픈은 관중 입장을

8개월만에 부산경남오픈 개최
국내파·해외파 간판선수 총출동
광주시 '의로운 시민상' 받은 홍상준
초청선수로 첫 코리아투어 출전

장이 허용되지 않고 선수, 캐디, 대회 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출전 선수 명단은 화려하다. 코리아투어 간판선수가 전원 출동한다. 게다가 한창 시즌 중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뺨 유러피언프로골프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 아시아프로골프투어가 주 무대인 해외파 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그만큼 우승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작년 코리아투어 대상 수상자 문경준(38), 상금왕 이수민(27), 작년 이 대회 챔피언이자 신인왕 이재경(21)이 개막전 우승을 노린다. 유러피언투어, 일본, 아시아 등 3개 해외 투어 카

드를 지닌 박상현(38)과 최진호(36), 이태희(36)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강경남(37), 김승혁(34), 김경태(34)도 정상을 노린다. 함정우(26), 전가람(25), 서요섭(24), 서형석(23) 등 코리아투어의 '젊은 피'도 주목해야 할 후보들이다. 지난해 17세의 나이로 아시아프로골프투어 파나소닉 오픈을 제패해 기대주로 떠오른 김주형(18)은 코리아투어 데뷔전을 치르고, 유러피언투어에서 3승을 거둔 왕정훈(25)은 2017년 신한동해오픈 이후 3년 만에 국내 대회에 나선다. '남시군 스윙'으로 세계적 관심을 끈 최호성(47)은 9년 만에 코리아투어 통산 3승에 도전한다.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양용은(48)의 등장도 반갑다. 지난 5월 길에 넘어진 할머니를 병원까지 차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보살핀 선행으로 광주시 '의로운 시민상'을 받은 홍상준(27)은 초청 선수로 난생 처음 코리아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이수민

최혜진, 타이틀 방어·시즌 첫승 '두토끼 잡기'

맥클·용평리조트오픈 3일 개막
이소영·박현경·이정은 우승 도전

최혜진(21)이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클·용평리조트오픈(총상금 6억원)에서 2020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7월 3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골프클럽(파72·6434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최혜진이 2017년과 2019년 우승한 대회다. 2017년에는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 김지현(29), 조정민(26) 등 경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최혜진의 2017년 이 대회 우승은 2012년 김효주(25) 이후 5년 만에 나온 KLPGA 투어 대회 아마추어 챔피언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혜진은 당시 이 대회 우승 후 미국으로 건너가 US오픈에 출전, 역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 경장을 벌인 끝에 준우승했고, 귀국해서는 보그나 MBN 여자오픈에서도 우승하는 등 '최혜진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우승한 최혜진은 올해 아직 우승이 없다.

14일 끝난 S-OIL 챔피언십에서 1위에 올랐지만 대회가 약천후로 18홀까지만 진행돼 우승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시즌 6개 대회에서 모두 10위 내에 드는 안정감을 보인 최혜진은 지난주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 휴식을 취해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최혜진은 "지난주 휴식으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며 "휴식하며 쇼트게임에 더 집중해 연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타이틀 방어 기회를 번번이 놓쳤는데 이번 대회는 개인적으로 잘 맞는 코스에서 열리는 만큼 다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 대상 포인트 1위 이소영(23)도 이번 대회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다. 지난달 E1 체리티오픈에서 우승한 이소영이 이번 대회에서 또 정상에 오르거나 가장 먼저 시즌 2승 고지를 밟게 되고 상금도 1위가 된다. 이소영 역시 2016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고, 지난해에는 2타 차 단독 2위에 오르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5월에 열린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현경(20)과 지난주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챔피언 김지영(24)도 시즌 2승



최혜진



이정은

을 노린다. 시즌 상금 2억4636만원으로 3위인 박현경 역시 우승 상금 1억2000만원을 받게 되면 김효주를 추월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이정은(24)은 올해 6번째 KLPGA 투어 대회에

나온다.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8위, 한국여자오픈 9위 등의 성적을 냈으나 국내 무대를 평정하고 미국에 진출한 이정은의 이름값에는 살짝 아쉬운 결과인 것이 사실이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최우수 수비상 문성근 KGC와 연봉 2억4000만원 사인

2019-2020시즌 프로농구 최우수 수비상을 받은 안양 KGC인삼공사의 포워드 문성근(27·196cm)이 연봉 2억원대에 진급했다. 30일 인삼공사 구단이 발표한 2020-2021시즌 선수단 계약 결과에 따르면 문성근은 지난 시즌 1억3천만원에서 1억1000만원 오른 보수 총액 2억4000만원(연봉 2억1000만원·인센티브 3000만원)에 사인했다. 인상을 84.6%로, 자유계약(FA) 재계약 선수나 군 제대 합류 선수를 빼면 팀 내 최고 인상률이다. 문성근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42경기에서 평균 30분 36초를 소화하며 7.3점, 5.0리바운드, 1.4어시스트, 3점 슛 1.5개를 기록,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남겼다. 특히 팀의 강점인 수비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쳐 2019-2020시즌 시상식에서 최우수 수비상과 수비5걸을 차지했다. 모든 선수를 통틀어 팀 내 최고 인상률은 지난 시즌 중 상무에서 전역해 합류한 슈터 전성현이 기록했다. 그는 총액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연봉 1억3000만원·인센티브 2000만원)으로 150% 올라 역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팀의 간판스타인 빅맨 오세근은 총액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3관	소리꾼, 침입자
4관	#살아있다, 닥크 나이트
5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위대한 쇼맨, 인베이션 2020, 해피 디 데이
6관	#살아있다
9관	결백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소리꾼, 침입자
8관 씨네카를	결백, 사라진 시간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탈기방>
2020. 7. 3.(금)~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창작발레 오월바람
2020. 7. 29.(수)~30.(목)
광주예술회관 소극장